

*패션 인문학 ✕ ✕ ✕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플래너가 추천드리는 ✕

YAMOIZA!



엄마의 옷장



패션 인문학 '엄마의 옷장'

CONTENTS

목차

YAMGIZA

01. 프로그램 소개

1-1. 워크숍 소개

1-2. 워크숍 커리큘럼



'엄마의 옷장'을 소개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낡았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는 엄마의 옷처럼, 우리 옷장에는 수만 가지 감정과 인생의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나의 서사를 꺼내어 동료들과 나누는 따뜻한 '소통'으로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나를 가장 생기 있게 만드는 스타일 언어를 찾아가며, 익숙한 옷장에서 새로운 설렘을 발견합니다. 무채색 업무 공간을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색으로 빛나는 시간을 통해 조직에 따뜻한 활기를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POINT

- 01 패션이라는 친근한 매개를 활용하여 정서적 벽을 허무는 공감 소통 경험 제시
- 02 원톤과 쿨톤 분석으로 자기 이미지 구축을 돕는 퍼스널 컬러 셀프 진단 포함
- 03 단순 이론 강의를 넘어 워크시트 실습과 나눔이 결합된 참여형 커리큘럼 운영



이 워크숍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패션인문학

패션힐링

퍼스널컬러

자기치유

패션 인문학 '엄마의 옷장' 이렇게 진행됩니다. | 총 운영시간 : 1시간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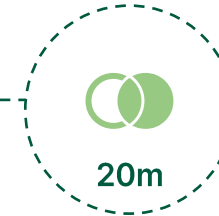
오프닝

- 강사 소개 및 패션 인문학의 의미 전달
- "옷장은 꽉 찼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일상의 고민 공감 토크



인문학 세션: 엄마의 옷장

- 끌림의 법칙: 옷장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조용한 일기장
- 엄마의 옷을 통해 본 사랑과 추억, 그리고 세대를 잇는 패션의 힘
- 옷 한 벌에 담긴 감정의 향기와 기억 공유



스타일 세션: 퍼스널 컬러 진단

- 감정의 언어로서 컬러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이해
- 웜톤 vs 쿨톤 셀프 진단을 통한 나만의 베스트 컬러 찾기
- 명인 사례를 통한 퍼스널 컬러 이미지 설계 전략 학습



워크시트 실습: 나의 이미지 찾기

- [활동] 나의 옷장 아이템 속에 담긴 감정 분석하기
- 내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 이미지 키워드 3가지 선정
- 현재의 나와 내가 원하는 이미지 사이의 간격 좁히기



소통 및 힐링 마무리

- 참여자 간 선정한 키워드와 이야기 나누기
- 강사 피드백 및 일상에서 실천하는 패션 힐링법 안내
- 따뜻한 소감 공유 및 마무리

Thank You.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YAMGIZA